

석굴암 천년 신비 추적

btn·KBS '신라불심과 과학의 만남' 입체적 제시

지극한 종교는 지극한 예술을 남기고 또 그 예술은 다시 지극한 과학으로 승화한다는 것을 보여준 석굴암. 그것은 시공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세계임이 틀림없다. 신라백두부터 방영된 두 편의 석굴암 다큐멘터리는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다시한번 생 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계에 유래없는 인공석굴 석굴암을 통해 신라불교의 정신을 조명하고 나아가 불교적 진리관 우주관의 모형을 밝혀낸 불교TV의 '석굴암' (1일 방영)과 석굴암에 대한 치밀한 조사로 그 본래모습을 추적,

실험통해 보수 위험성 지적... 개방구조·무지갯돌 해체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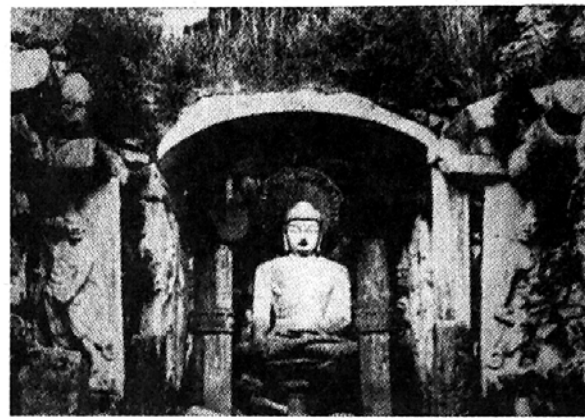
경솔한 유적보수의 위험성을 고발한 KBS ITV의 '원형탐구 석굴암' (3일 방영)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건축기술이 아무리 우수했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심의 바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을 단언하고 있는 불교TV의 '석굴암'은 전 실 주실등의 건축구조와 불상 하나 하나의 의미까지도 되새겨냈다. 깨달음의 진리를 건축과 조각의 비례의 문제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석굴암'은 석굴암이 바로 불교의 연기사상이며 연화장세계를 표현한

중중무진의 비례를 이방에 실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제가 석굴암의 상징성을 퇴색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석굴암 무지갯돌의 해체야말로 불교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불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ITV의 '원형탐구 석굴암'은 석굴암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대거 소개, 석굴암의 원형보존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주었다. 먼저 석굴암이 지금의 폐쇄구조가 아닌 개방구조라는 점과 감실의

통풍기능을 설명하고, 지금은 사라져 버린 정면상단 창문의 존재가능성을 불국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강조한 외벽구조, 샘물의 습기조절 효과 등의 실험은 다음 천년의 보존기법에 하나의 단서를 제시했다. 자연의 순리를 이용한 고도의 과학 앞에 현대과학의 오만함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원형탐구 석굴암'은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벌어진 두 차례 보수공사의 부실을 지적, 지나



◇비례의 미를 통해 불교적 진리세계를 구현해낸 석굴암의 원형탐구와 보존은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있다. 사진은 1913년 일제에 의한 첫 보수공사 직전의 석굴암 원형모습.

간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중간에선 우리에게 과연 이 석굴암을 어떻게 무사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교TV의 '석굴암'과 KBS ITV '원형탐구 석굴암'은 각각 다르게 제작되었지만 석굴암의 신앙적

의의를 조명할 1부와 원형탐구를 통한 보존의 문제를 조명할 2부로 다시 엮어내도 한편의 훌륭한 연작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의견이다.

이은자 기자

16일 성도절 특집

불교TV △다큐멘터리 성도의 땅-부다가야 (16일 낮 12시10분)=인도 갠지스강의 지류인 팔구다나강에 임해있는 부다가야. 불교의 4대 성지중의 하나인 부처님 성도의 땅 부다가야를 찾아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본다.

△TV신행상담 '깨달음이란' (16일 오전 11시10분)=법려사 신도들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교수가 출연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도절에 관련된 금강중생을 풀어본다.

불교방송 △'깨달음의 빛 생명의길을 따라서' (16일 오후 5시10분)=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성도의 의미를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이 설명하고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고려사의 성도제일 표정과 도심포교당의 철야수행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깨달음의 빛 온누리' (16일 오전 10시15분)=고승대 스님을 초청, 법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불교적 지혜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을 들어본다.

남) 관음사 보문사 등 조계종 산하 3개 사찰이 있고 브리스베인에는 금강사가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1848년 중국의 광산노동자들이 호주의 골드러시에 합류하면서부터다. 당시 아시아계 이민자의 신앙생활은 호주인들 눈에 총적으로 비쳐 소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가 생겨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대부분 불교신자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인도차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불교의 교세가 급속히 커지는 등 전환기를 맞이했다. 1980년에는 베트남 승려들이 입국해 베트남 신도들을 위한 별도의 사찰을 건립하면서 호주 불교는 소수민족간의 연합체로 발전했다.

(속)

한중일 합동 개최

6월 11~14일 한국서... 구인사에 통일 평화책 건립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한중일 3국 대표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를 열고 '천태종 1400주년 대원기 3국 천태종 합동법요식'을 한국에서 봉행키로 결의했다.

삼국대표 독경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회의에서 한국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중국 국청사주지 가명

스님 일본 연역사 부집행 이마데가와 교은스님등 3국천태종 대표스님들은 천태종 1400주년 대원기 3국천태종 합동법요식을 오는 6월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한국에서 개최키로하고 일정과 참가예상 인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연역사에 세워진 한반도 평화



◇남부 웨일즈의 울릉공 시에 있는 남천사 대법당. 남부구에서 가장 거대하다는 남천사의 위용은 호주 불교 인구의 급성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최근 호주 불교인구가 지난 15년간 3만5천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해 약 500%의 급성장을 보였다는 최신조사도 나와 눈길을 끈다.

호주 불교의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에 놀라움을 표한 호주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과 호주에 광범하고 있는 세기말적 증후군과 연결되는 등 불교증진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호주 불교의 역사) 편저자인 필립 휴스(P. Hughes)는 '서구사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

20만 호주인 불교심취

"정신적 안식처" ... 정법사등 한국사찰 3곳

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 등을 통해 폭발적 상태의 긴장감을 풀고 정신적 해방감을 얻고 있다'고 불교증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세계최초로 안락사법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동

성으로 인한 에이즈환자 증가, 인종차별 논쟁 등이 세기말적 증후군을 형성하면서 불교가 지성인의 정신적 안식처로 선택되고 있다.

호주에서 한국불교는 1984년 중국사찰에서 법회를 최초로 회향한 이후 줄곧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은 시드니에 정법사(주지 기후스



◇대전지역불자들의 문화공간인 녹야원 및 불교도서관이 지난 5일 개원했다.

대전 녹야원 5일 개원

불교도서관·청소년 참선법회등 운영

청소년과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법회공간 녹야원과 2만여권의 불교서적을 구비한 불교전문도서관이 지난 5일 대전에 문을 열었다.

이날 녹야원 및 불교도서관 개원 법회에는 대전사원련회장 현수스님

부회장 현광스님 원효사상연구회장 심재열교수 대한불교법사회 이경의 총무이사 청정회회장 강정진법사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지역불교 발전을 서원했다.

녹야원 초대원장 박형권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대불련의 수행공간과 지역불자들을 위한 생활속의 불교문화공간 불교도서관을 마련한 만큼 정법포교에 매진하겠다'며 '녹야원운영은 재정증가를 원칙으로 일일법회를 활성화하고 초심자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야원 및 불교도서관은 10여년전부터 추진, 5억여원의 재원을 들여 1백6평 부지에 건평 65평의 포교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불교도서관은 팔만대장경등 경전류와 불교문화 어린이도서 등 양형화 서양철학등 다양한 종류의 불교서적 2만권과 4백여종의 불교비디오 오디오테이프 종합포교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지역불교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녹야원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일법회 증등부법회 어린이법회가 열리며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강정진법사가 지도하는 참선법회가 개최된다.

한편 대법당에는 가로 270cm 세로 180cm크기의 영산회상도 금리명화(원미회 작)가 점안됐으며 2월경 인간문화재 박찬숙씨 작의 목불좌상이 안치될 예정이다.

... 이 석불좌상 배설물은 골짜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는 각기 탑이 1기씩 놓여 있어서 야외불당의 주춧돌 구실을 하고 있다. 불상은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을 갖추고 그위에 옹마루 치미등이 모각되어...



이경숙 <취재2부 차장>

전불전담의 신비가 안개처럼 어려있는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보물 제797호)의 안내판 내용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등을 맞댄 형태의 두 부처님의 투박하면서도 이색적인 모습을 연상하기 어렵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안내판은 대부분이 이처럼 어려운 한자투와 전문용어 투성이었다가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되어있어, 안내문을 읽으면서 그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늘어나기 보다는

알려줘야 하는데 사찰의 문화재 안내판은 천편일률적이다.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은 열심히 안내판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 돌아갈 때 마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포장의 중요성, 광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첨단비디오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문화재 안내판만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횡포가 농후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렇게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안

문화재 안내판

내판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바뀔 모양이다. 문체부는 전국에 설치된 문화재안내판 총 5355건에 대해 경주지역부터 차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순화정비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차제에 문화재안내판이 누구나 알기 쉬운 대중성있는 문장으로 그리고 모양에서도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면 문화재 안내판의 특성에 잘 어울리는 개성과 참신함을 갖추면 한다.

또 사찰문화재일 경우 안내판에 불교적 내용이 녹아들면 불교질라 잡아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종단과 사찰차원의 관심과 치밀한 준비도 요구된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 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B/D 1F TEL : 514-1118/9
-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이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